

대한민국에서의 영어교육

1.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실상

요즘 전 세계가 모두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 자존심 센 프랑스에서조차도 좋은 다국적 회사 입사를 위해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영어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하며, 독일의 유치원에서는 아예 독일어를 모르는 영국인을 고용하여 어릴 적부터 영어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인재 영입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인한 고통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피해 갈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 영이문화권의 국가들조차도 이러한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이 글을 통해 모두가 예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의 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두려움을 느낄 지경이다.

과외공부를 통해 대학생보다 높은 토플점수를 받아야 특목고를 꿈꿔볼 수 있는 현실에서, 아이미리그 대학원에 들어가는 데도 토플 만점이 필요 없는데 특목고를 가려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토플만점을 맞을 실력을 갖춰야만 한다.

또 영어가 거의 의식주 수준이 되어버리자 영어를 필요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기업들, 관공서에서조차도 토플, 토익점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대학 졸업예정자들은 졸업도 미룬

채, 토익점수 높이기 위한 공부에 더 열을 올린다. 대학들도 능력도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토익 몇 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을 시키는 이학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영
한국산업기술대학교
031-4968-311
lyee@kpu.ac.kr

초등학교에서는 매 학기 해외 언어연수를 갔다 오는 아이들이 은근히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주눅이 드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영어 학습 관련 시설 학원은 도부지 불황이라고는 모르는 사업이 되었고, 정부는 연일 국제화 학교 설립을 발표하여 모든 사람들을 영어 공황 상태로 몰아가는 듯하다.

2. 영어의 필요성

영어가 실제 업무에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는 모든 업무를 모두 경험할 수 없으므로 딱 부러지게 언급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영어에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대기업체에서 외국기업과 영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어를 꼭 잘 해야만 한다는 법은 없다고 본다. 중요한 계약을 앞에 두고 접어한 내치를 하

고 있는데 영어에 의해 오히려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하지 않을까? 내용에 더 정통하고 이를 통한 협상의 기술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또 인간이 하는 일이므로 끈끈한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인적자원(Human Network)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라는 것이 켈자의 의견이다. 물론 영어는 전문통역사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협상을 이끄는 데 있어 협상의 여유를 더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지난번 소고기 협상에서 관련 부서의 문건 오역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기억한다. 물론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부모가 원어민이 아닌 다음에야 그것은 바람 수도 없는 일이다.

영어는 단지 의견을 교환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 도구만을 정교하게 다듬으면서 점차 중요한 실무에서는 소홀하거나 기운이 소진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속담에 방금 고치다 참 다 과하다는 말도 있듯이 한창 지식을 늘리고 응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불입교육이다 하여 도구만을 갖출 것을 강요한다면, 정작 실무를 해야 할 때에는 몸과 마음이 지쳐 그르칠 수도 있다.

지난 70년대 이후 많은 우리의 유학생들이 영어 문화권에서 아무런 문세없이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여 우리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영어가 문세였다면 어떻게 학위를 마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현재 우리의 영어 열풍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영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을 이런 때부터 시열을 매기는데 영어가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우리 아이가 남의 아이와 다를 수 있는 것은 영어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구심

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여튼 우리는 일평이는 봐두고 너무 걸치장하는데 만 정신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정부가 나서서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영어 열풍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영어 외에도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비영어권 국가들도 많다. 우리는 이들을 상대로 같이 살아 가야한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들의 능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자원빈국으로서 다양한 방면의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만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이라고 판단된다. 영어만 갖고 우리 아이들을 필요 없는 경쟁에 내몰아 괴롭히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숨겨진 다양한 능력을 끄집어 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선진국 진입을 앞둔 우리가 해야 할 급선부라고 본다.

지도급 인사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본인이 외국어, 특히 영어 소통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후세대들은 그런 경험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리라고 믿지만, 산위에서 굴러진 조그만 돌이 산 아래에서는 커다란 바위 돌의 위력으로 덮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계획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많은 대한민국의 부모들을 현대판 이산가족, 기러기 아빠 등의 비극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 기술표준20089